�� 《장(場) / The Field》

프롤로그 툭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1장. 장의 감각 (초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습성을 가진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는데도 하늘은 붉어진다.

해도 달도 없는데, 강물 위에 빛이 번진다.

보이지 않는 광원이 이미 세상을 물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은 오래 전부터 이를 알았다.

중력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과를 떨어뜨리고 행성을 끌어당긴다.

전기장과 자기장도 직접 보이지 않지만, 철가루와 번개로 존재를 드러낸다.

“장은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는 힘”이다.

사회도 다르지 않다.

보이지 않는 규칙, 위계, 암묵적 합의가 인간을 움직인다.

우리는 그 장 안에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장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런데 기술은?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기술은 하나의 장이다.

UI와 디폴트, 설정과 알고리즘은 도구의 표면이 아니라,

우리를 길들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배치다.

장을 읽을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보이지 않음 속의 힘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남이 짠 장 속을 살 뿐이다.